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와 세계기록유산 직지(直指)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남 윤 성*

1.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필자는 1995년 이래 지금까지 ‘금속활자와 직지(直指)’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를 7편 제작했다.¹⁾ 그동안 국내외의 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취재해온 결과, 필자는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은 다름 아닌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이라면 사회나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으로, 1234년경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했고, 이는 독일 구텐베르크 보다 200년 이상 앞섰다”고 여러 차례 배웠고, 시험문제에도 단골로 출제됐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당연히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무색무취하게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설사 금속활자 인쇄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금속활자 인쇄를 했으면 뭐하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는 세계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게 없다. 우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일 구텐베르크의 영광, 그 세계사적 위상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마저 있어 자조적 입장에서 이 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 필자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곤 한다.

2. 역사 발전과 금속활자 인쇄술의 관계

미국의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은 4번에 걸친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다고 했다. 첫 번째 정보혁명은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은 물론 논리에 이르기까지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 두 번째 정보혁명은 말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 세 번째 정보혁명은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 네 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남윤성,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2-8. 청주MBC, 전화: 010)5484-4339 FAX: 043)239-7821, E-mail: ysnampd@hanmail.net

* 청주MBC 편성국장

¹⁾청주MBC창사25주년특집다큐 <직지>(1995년) *한국방송대상(지역부문 작품상) 외 2개 부문 수상, 청주MBC창사30주년특집다큐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1부:세계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 2부: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 3부:한국의 금속활자 세계로 가다(2000년) *한국방송프로그램21상 대상 외 7개 부문 수상, 청주MBC창사33주년특집다큐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2부작>1부: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2부:활자로드는 없는가?(2003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외 2개 부문 수상, 청주MBC창사36주년특집다큐 <직지의 최초 발견자 콜랭 드 플랑시>(2006년) *MBC전국TV작품경연대회 동상

재 정보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의 개막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가능하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제3차 정보혁명,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1997년 미국의 세계적인 언론사인 타임(TIME)사에서는 지난 천년 세상을 움직인 100대 사건을 선정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으로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42행성서』²⁾를 금속활자로 인쇄했던 역사적 사실을 꼽았다. 선정 이유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나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이 불가능했고, 오늘날 민주주의 역시 이 인쇄술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³⁾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아이젠슈타인(E.L.Eisenschtein)은 “인쇄술이야말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일으켜 근대 사회를 불러 왔다”고 강조하면서, “인쇄술은 역사의 충격이었다.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인쇄술을 말하며 여러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인쇄술은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었다”⁴⁾라고 했다.

그러나 위에서 학자들이 언급한 인쇄술은 모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고려시대 세계 최초로 시작했던 금속활자 인쇄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세계 인류문화사 속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무엇일까?

3.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高麗)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3.1 최소한 1200년대 초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고려

비록 세계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시대 어떤 역사문헌에도 금속활자 발명 과정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의 금속활자 기원설로 문종조(1046~1083 재위) 기원설, 숙종조(1095~1105 재위) 기원설 등이 있으나 아직 정확히 고증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 1200년대 초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⁵⁾

현재까지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나온다. 1234~1241년 사이 “『상정예문』 50권 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해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는 것이다.⁶⁾

5) 천혜봉 『한국서지학 연구』 고산 천혜봉 교수 정년기념 선집 간행위원회, 1991년, pp 736~748,

6)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 권11에는 “新印詳定禮文跋尾代晉陽公行” “...鑄字印成 五十卷 二十八本 分付諸司” 즉, “새로이 『상정예문』을 인쇄하며 진양공을 대신하여 발문을 쓴다...50권 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해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가 예전 교과서에서 『고금상정예문』 또는 『상정고금예문』으로 배웠으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분명히 『상정예문』으로 나와 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당대의 대학자 이규보가 당시 무인정권의 최고실력자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를 대신하여 쓴 것으로, 『상정예문』을 언제 금속활자로 인쇄했는지 연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최이(최충헌의 아들)가 진양공에 오른 해가 1234년이고 이규보가 사망한 해가 1441년인 관계로 『상정예문』이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정예문』은 고려 무인정권 최고 권력자인 최이의 명에 의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요즘 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쇄된 것이다. 상정예문』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처럼 국가의 모든 의식을 성리학적 질서인 예에 따라 하기 위해 정한 법규집이다. 『동국이상국집』에는 『상정예문』을 50권 28부를 인쇄해 정부 각 부처에 배포

2) 이 『42행성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1400~1465)에 의해 1455년 인쇄되었으며, 이 성서의 행이 모두 42행인 까닭에 『42행성서』라고 부르고 있다.

3) 『The Life Millennium-100 most important events and people of the past 1000 years』 미국 Time사, 1997

4) 김민환 『동아시아의 근대신론 지체요인』 나남출판, 1999, p16.

그러면 『상정예문』인쇄가 고려시대 최초의 인쇄였을까? 이 시기는 몽골의 2차 침입으로 고려는 강화도에 천도해 있었던 때이다. 외적의 침입과 천도라는 풍전등화의 국가 위기 속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탄생된 것일까? 몽골에 쫓겨 수도 개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야 했던 국가적 대위기 상황에서 한가하게 책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 금속활자 인쇄술을 창안하고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천도 이후는 국난극복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⁷⁾ 당연히 강화도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천도 이전 이미 개성에서 사용하던 금속활자를 강화도까지 가져와 『상정예문』을 인쇄했을 것이다. 또한 『상정예문』인쇄가 고려의 첫 금속활자 인쇄였다면 이규보는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 최소한 몇 마디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국이상국집』〈신인상정문발문〉에는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해 각 부처에 배포했다는 정도의 지극히 간단한 사실만이 기록돼 있을 뿐이다. 강화도에서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은 당시 이규보와 최이가 활동하던 그 시기 전혀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하던 그 시기는 고려 조정에서 이미 ‘금속활자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던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이다.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남명천화상 송증도가(南明泉和尚 頌證道歌)』⁸⁾가 있다. 이 책

의 맨 뒤에는 진양공 최이가 쓴 글이 있고 여기에는 “증조 주자본(重彫鑄字本)...기해(己亥) 9월(九月)”이라는 기록이 있다. ‘증조(重彫)’란 “책장을 뜯어 목판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새겨 책을 찍어냈다”는 뜻이고 이렇게 만든 책을 학계에서는 번각본(飜刻本)이라 부른다. 『증도가』번각본을 만든 해가 기해년, 즉 서기 1239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39년 이전에 찍어낸 주자본(鑄字本), 다시 말해 금속활자본 『증도가』가 있었기에 번각본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번각으로 책을 다시 찍어내는 것은 기존의 간행한 책이 세월과 함께 많이 없어져 똑같은 책을 다시 만들 필요가 생길 경우 사용하는 기법이다. 본래의 금속활자본 『증도가』가 강화도 천도 후 전란으로 없어졌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금속활자본 『증도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번각본 『증도가』를 찍어냈을 것이다. 따라서 금속활자본 『증도가』는 강화도 천도 이전 개성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⁹⁾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정예문』보다 먼저 『증도가』가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던 1232년 이전에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1200년대 초에 수도 개성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상정예문』이나 『증도가』는 물론 발명 직후 내지는 초기에 인쇄된 책들이 오늘날 하나도 전해오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 실

했다고 나오는데 책이 전해 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매우 방대한 양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보는 무신난을 평정한 최충헌에 이어 최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최고위직 문신을 지낸 당대의 대학자였다.

7) 천혜봉, 전계서 p.749

8) 이 책의 원본은 중국의 남명 법천 화상이 선종의 진리에 대해 논한 것으로 1076년 중국 절강성에서 초간본이 나왔

고, 줄여서 흔히 『증도가』부른다. 이 책은 고려에도 수입되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9월 경북대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를 인쇄한 금속활자가 존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9) 천혜봉, 전계서 p 750

물 가운데 유일한 것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고려 우왕 3년, 즉 서기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백운화상 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직지(直指)』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보다 정확히 78년 앞서 인쇄된 것으로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인쇄 실물이다.

3.2 금속활자 발명은 시대적 요청의 산물

최소한 1200년 초 고려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해 책을 찍어내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고 있을 때, 중국은 700년대부터 사용해온 목판 인쇄에 만족하고 있었고, 서양에서는 필사(筆寫), 즉 펜으로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고 있었다. 중국이 쇠를 다루는 기술이 없어 목판으로 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거나, 서양에서는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기술조차 없어 목판인쇄도 못하고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드는 방법 밖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은 이미 기원전 한나라 때에 주형(鑄型)에 쇠물을 부어 동일한 모양의 동전을 수없이 만들어냈고, 기원전 로마시대에 제작된 온갖 무기와 장신구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중국이나 서양에서 목판이나 필사의 방법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책을 만들어 지식과 정보를 유통해도 그 당시 사회에서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빠른 유통을 요구하는 시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 정확히 언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사용해온 목판 인쇄술에 대해¹⁰⁾

어느 시대에 이르러 너무나 큰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편의 핵심은 책을 만들어 내는 ‘속도’의 문제였다. 금속활자 인쇄는 책을 만들어 내는데 필사 또는 목판 인쇄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목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자르고, 나무가 뒤틀어지지 않도록 삶아 쥘 후 말린다. 그리고 종이에 일일이 글자를 써서 목판에 뒤집어 붙인 다음 글자를 하나씩 칼로 새겨 나간다. 모든 판이 다 완성되면 먹을 발라 인쇄한다. 목판 인쇄는 한번 판을 새겨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목판에 먹을 바르고 책을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판 인쇄의 단점은 목판을 깎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목판은 벌레 먹어 썩기 쉽고 여러 번 반복하여 인쇄를 하다보면 글자 획이 닳거나 아니면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까지 있어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큰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은 다른 책을 만들 때마다 일일이 목판을 다시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속활자는 처음 활자를 만들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목판에 비해 많이 들지만, 글자를 하나씩 주물로 떠내 만들어 놓으면 다른 책을 찍을 때마다 글자를 뽑아 조판(組版)과 해판(解版)을 거듭하며 수많은 종류의 책을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다. 재료 역시 금속인 관계로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쇠를 다루는 기술을 책을 만드는데 접목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바로 고려였다. 금속활자 인쇄술이야말로 책을 만드는데 있어 가히 혁명적인 법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빨리 빨리’ 유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시대적 요청’이 없었다면 고려는 책을 만

10) 목판인쇄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목판인쇄를 시작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은 경주 석가탑

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서기 751년경 인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들 때 중국처럼 목판 인쇄를, 중국만도 못했다면 아마 서양처럼 필사에 만족하고 있었을 것이다. 책을 빨리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 즉 “필요가 발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고려는 한마디로 당대 세계 최고(最高)의 지식정보강국이었다.

중국에서는 1490년대 <화씨회통관(華氏會通館)>이라는 민간차원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처음 시작됐다.¹¹⁾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한 것은 1726년 청나라 옹정제 때의 일이다.¹²⁾ 서양에서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42행성서>를 인쇄한 것이었다.

중국이나 독일은 1400년 중후반에 와서야 보다 빨리 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이 생겼던 것이다.

현재까지 기록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활자 인쇄술에 도전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1041년 북송(北宋)의 필승(畢昇)이란 평민이 흙으로 활자를 만들어 불에 구워낸 후 이 흙활자를 한자씩 조판을 하여 인쇄에 도전했던 기록이 있다.¹³⁾ 그러나 흙으로 활자를 만들었던 관계로 쉽게 파괴되고 내구성이 없어 실용화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중국에서 활자 인쇄술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면 당연히 필승의 흙활자 인쇄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금속활자 인쇄술로 완성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승의 활자 인쇄술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그후 원나라 때 왕정(王禎)이란 지방관리가 1313년에 목활자로 『농서(農書)』 22권을 간행한 바 있으나 이 목활자 역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최첨단 정보전달수단이었던 활자 인쇄술은 중국에서 국가사회적 차원의 시대적 요청이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사장(死藏)되고 말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3 금속활자 발명을 이끌어 낸 고려의 문화적 배경

918년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하여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는 한편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이미 태조 때에 개경학(開京學), 서경학(西京學)이란 교육기관을 세웠으며,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이어 성종 11년(992년)에는 수도 개경에 국자감(國子監)이란 국립대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방의 12목(牧)에는 경학박사(經學博士)를 파견하는 등 일찍부터 고려는 교육을 통한 학문의 발달이 진행되었다. 또한 내서성(內書省), 비서성(秘書省), 비서감(祕書監), 전교사(典校寺)를 비롯해¹⁴⁾ 서적포(書籍鋪),¹⁵⁾ 서적점(書籍店), 서적원(書籍院)¹⁶⁾ 등 책의 간행과 비치(備置)를 전담하던 이른바 국립도서관이 고려 말까지 계속 존재했다. 비록 지배계층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고려는 유불문화(儒佛文

11) 정의 3대 황제 강희제(1661~1722 재위) 때 시작한 대출판사업의 일환이었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 4대 황제 옹정제 (1722~173 재위) 때인 1726년 동활자로 인쇄되었다.

12) 심괄(1031~1095)의 저서 『몽계필담(夢溪筆談)』에는 필승이 교니활자(膠泥活字:교니라는 흙으로 만든 활자)로 책을 인쇄하고자 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다.

14) 고려 초기 세워진 내서성은 성종 14년(995년)에 비서성으로, 충렬왕24년(1298년)에는 비서감으로, 충렬왕34년(1308년)에 전교사로 개정했다.

15) 숙종6년(1101년) 국립대학인 국자감 안에 서적포를 설치하고, 비서성에 소장되어 있던 모든 책판(冊板)을 이곳에 옮겨 널리 인쇄 보급하게 하였다. 서적포를 설치한 것은 비서성의 책판이 훼손되고, 사학(私學)의 번성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관학(官學)을 진작시키기 위해서였다.

16) 문종 때 책의 간행을 위해 서적점을 설치하고, 충선왕 1년(1309년) 한림원(翰林院)에 일시 합병하였다가 분리했으며, 공양왕 4년(1392년) 서적원으로 개칭했다.

化)가 공존하며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며 지식문화가 융성했던 왕조였다.

고려사에는 고려가 지식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선종 8년(1091년) 편에는 송나라 철종이 고려에 책이 많음을 알고 사신을 통해 고려에 엄청난 양의 책을 요청했던 기록이 있다. 바로 <구서목록(求書目錄)>이다. 이 목록에는 총 128종에 4,992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책 제목이 등장하고 있다. 당나라에 이어 문화통치를 이어온 송나라에서 자국에 없는 책을 고려에 특별히 주문했던 것이다. 고려는 한마디로 ‘책의 나라’였던 것이다.

원래 고려에서도 <조선왕조실록>처럼 하루하루의 국정을 일기처럼 기록했던 <고려왕조실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왕조실록>은 조선 개국 후 <고려사>로 축약되고 원본은 모두 파기되었다고 한다. 만약 <고려왕조실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아마도 금속활자 인쇄술을 필요로 했던 시대 상황과 배경, 발명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4.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직지(直指)』

4.1 『직지』의 개요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물로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가 유일본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지』의 원제목은 『백운화상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¹⁷⁾이고 『직지』라는

17) 백운화상이 초록했던 원저서 『불조직지심체요절』은 중국 원나라 때의 석옥 청공 화상이 편찬한 책으로 역대 불조사(佛祖師)들의 어록에서 선의 요체에 대해 정리해 놓은 책이다. 백운화상은 이 책의 내용에서 다시 핵심을 발췌, 수

약칭으로 가장 널리 불리고 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외 흥덕사 주자인시(宣光七年 丁巳 七月 淸州牧外 興德寺 鑄字印施)”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풀이하면 “선광¹⁸⁾ 7년, 즉 고려 우왕 3년, 서기로는 1377년에 청주목 외곽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것이다. 흥덕사에서는 『직지』를 간행하며 인쇄 연대와 인쇄 장소, 인쇄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직지』는 원래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¹⁹⁾ 현재 전해오고 있는 금속활자본 『직지』는 첫 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의 하권 1권 뿐이며, 이 책은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특별서고에 깊숙이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프랑스로 가져간 사람은 조선에 부임해왔던 주한프랑스초대공사 빅토르 콜랭 드 뵈랑시(Victor Collin de Plancy)였다. 그는 1890년대 말에 조선에서 『직지』를 만나 프랑스로 가져가 1911년 『직지』를 경매에 붙여 팔았고, 『직지』를 사간 앙리 베베르(Henri Vever)의 유언에 의해 1952년 『직지』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직지』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7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책(Livre)’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통해 『직지』를 처음 공개, 전시한 이후부터이다.²⁰⁾

록한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저술했고, 백운 화상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인 석찬(釋璨)과 달잡(達湛)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퍼냈다. 중심주제인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 때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18) 선광(宣光)은 북원(北元, 중국 명나라가 건국되며 몽골로 쫓겨간 이후의 원나라)의 소종(昭宗)이 사용했던 연호.
19) 여주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직지』가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는데 상,하 2권 전 내용이 다 실려 있다. 목판본 『직지』는 보물 1132호로 지정돼 있다.
20) 197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책’ 전시회 이전 1901년에 발

4.2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1985년 청주시 상당구 운천동 일대에서 대규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개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 절터를 발견했고²¹⁾,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세계에 자랑하고 기념하기 위해 1992년 흥덕사 절터 한편에 청주고인쇄박물관(淸州古印刷博物館)을 세웠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리기로 하고 약 2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²²⁾ 드디어 2001년 9월 4일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UNESCO)에 등재되었다.²³⁾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직지』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 책은 인류의 인쇄 역사와 기술 변화를 알려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다”라고 하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²⁴⁾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청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4년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상((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UNESCO)’을 제정하고 격년제로 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행된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 ‘이미 『직지』가 소개된 바 있다.(목록번호:3738번)

- 21) 1985년 청주대학교 발굴조사단은 절터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했고, 결정적으로 ‘흥덕사’라는 명문이 새겨있는 금구(禁口) 1점과 청동그릇 하나를 발굴했다.
- 2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원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에서 심사, 등재토록 되어 있는데, 생산자(청주시)가 신청하여 등재된 최초의 경우이다.
- 23) 2001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가 청주에서 열렸고, 9월 4일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와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 날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승정원의 기록 『승정원일기』(국보303호)도 함께 등재됐다. 청주에서는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9월4일을 <직지의 날>로 정하고 격년제로 <직지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직지』에 앞서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 24) http://portal.unesco.org/ci/en/ev.php-URL_ID=3946&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기록과 정확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은 최소한 12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여 책을 찍어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직지』 이전의 금속활자 인쇄물은 현재까지 1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직 직지 1권만이 전해오면서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의 웅대한 문화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직지』마저 전해오지 않았다면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발명 사실 자체마저 부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쇄 실물증거 없이 단순한 기록만으로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지』가 가진 인류문화사적 의미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이다.

두 번째 『직지』의 중요성은 『직지』야말로 금속활자로 찍어낸 인쇄실물인 관계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고려시대의 인쇄 기술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데 있어 유일한 자료라는 것이다.

세 번째 『직지』의 중요성은 최첨단 미디어인 금속활자 인쇄술이 중앙정부에서만 아닌 청주라는 지방도시의 사찰에서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당대 최고의 지식정보강국, 고려의 높은 문화적 수준이 수도 개성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지』는 우리나라 일개 지방 도시인 청주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의 웅대한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실물 증거이며, 우리 역사 또는 민족문화의 세계사적 위상을 알려주는 상징 바로 그 자체가 아닌가!

5. 맺는 말

오늘날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대가 열리기 전 최고의 정보전달수단은 금속활자 인쇄술이었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미디어 혁명’을 일궈낸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강국이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며 일부 학자들마저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세계사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하며 자조적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연간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자하며 <직지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청주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은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와 『직지』의 세계사적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기념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

지난 2005년 미국 부시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 독일 정부에서는 양국정상회담의 첫 개최지를 마인츠로 정하고 부시 대통령을 구텐베르크 박물관으로 안내했다. 부시 대통령은 구텐베르크박물관을 둘러보고 “독일은 세계사의 진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독일국민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찬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정상을 청주고인쇄박물관이나 흥덕사지로 안내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번도 들어본 바 없다.

지금까지 청주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온 <직지 세계화>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그리고 『직지』기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먼저 『직지』를 기념하고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 세운 청주고인쇄박물관을 현재의 청주시 사업소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해 그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와 『직지』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한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학문적으로 분명히 정립해 놓아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중국 학자들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에 대한 전면적 부정²⁵⁾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활자로드(TYPE ROAD)²⁶⁾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규명²⁷⁾ 등이 그 대표적 과제이다.

끝으로 이러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며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그리고 직지’에 대한 인류문화사적 의미와 그 높은 위상이 전 세계 교과서에 당당하게 실릴 그 날을 기대한다. <끝>

※ 참고 사진

○사진(1):『직지』 표지 상단부에 쓰여 있는 불어 글씨는 직지를 한국에서 수집한 주한프랑스초대공사 콜랭 드 플랑시가 쓴 것으로 “이 책은 한국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세계에서 연대가

25) 1990년대 말부터 반길성(潘吉星), 사금파(사금파) 등 중국의 대표적 학자들은 한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부정하고 중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주장하는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1997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동서 고인쇄문화 심포지엄’에 참가한 중국사회과학원의 반길성(潘吉星)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전(聖戰)에 출전하는 기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학자들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00년 청주MBC에서는 특집다큐멘터리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제2부: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2000.9.29.방송)에서 조목조목 비판하며 적극 대응한 바 있다.

26) 지금까지 유럽은 물론 한국의 거의 대부분 학자들마저 독일 구텐베르크를 ‘독자적인 발명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넘어간 길, 즉 ‘실크로드(Silk Road)’가 존재하듯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서양으로 넘어갔다면 ‘활자로드(Type Road)’가 있을 것이다. 청주MBC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공동기획으로 2년의 제작기간으로 활자로드의 존재 여부를 집중 탐사한바 있다. 영국의 동서문명교류 연구학자인 허드슨(G.F. Hudson)은 한국이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벤르크는 이미 기술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1961년 『유럽과 중국(EUROPE AND CHINA)』169~168p)

27) 청주MBC특집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2부작 “제1부”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제2부:활자로드는 없는가?”(2003.12.26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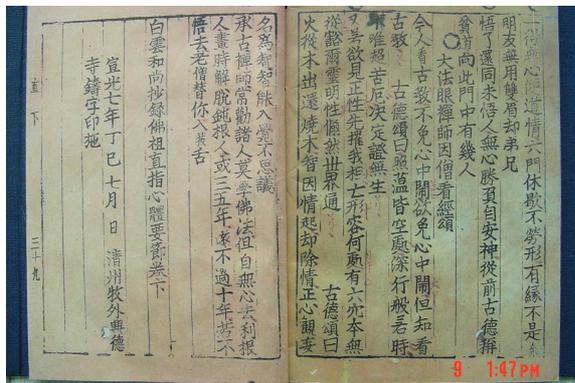


사진(1):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 소장된 『직지』 원본 표지



사진(3):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지(興德寺址) 전경

○사진(3):1985년 흥덕사 절터를 발견하고 사적 315호로 지정한 후 절터에 금당과 탑을 복원해 놓았다.



사진(2): 『직지』 마지막장 사진

가장 앞선 책이다”라는 내용이다.

오른쪽 하단부에는 ‘한국고서 109번’이라는 색인표가 붙어 있고, 왼쪽 상단부 ‘직(直)자 옆에는 『직지』가 경매장에 나왔을 때 붙여진 ‘711번’이라는 표시이다.

○사진(2):왼쪽 마지막 두줄에 “宣光七年 丁巳 七月 淸州牧外 興德寺 鑄字印施(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외 흥덕사 주자인시)”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선광 7년, 즉 고려 우왕 3년, 서기로는 1377년에 청주목 외곽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냈다”는 내용이다.



남 윤 성

- 1984년 청주MBC에 PD로 입사~현재 청주MBC 편성국장
- 청주MBC창사25주년특집다큐 <직지>(1995년) (*한국방송대상(지역부문 작품상)의 2개 부문 수상)
- 청주MBC창사30주년특집다큐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2000년)
 - 1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
 - 2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
 - 3부: 한국의 금속활자 세계로 가다 (*한국방송프로그램21상 대상 외 7개 부문 수상)
- 청주MBC창사33주년특집다큐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2부작>(2003년)
 - 1부: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 2부: 활자로드는 없는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외 2개 부문 수상)
- 청주MBC창사36주년특집다큐 <직지의 최초 발견자 콜랭 드 플랑시>(2006년) (*MBC전국TV작품경연대회 동상)